

A Companion to Economic Geography

Sheppard, E. and Barnes, T.(eds.), 2000, *A Companion to Economic Geography*, Oxford: Blackwell.

이 금 숙*

Eric Sheppard와 Trevor J. Barnes가 편집한 이 책은 지리학과 학부의 고학년 과정과 대학원 생들에게, 그리고 경제지리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경제지리학을 연구하는 방식에 대해 감각을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경제지리학의 성립과 방법론에서부터 경제지리학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주제들에 대한 뚜렷한 입장을 지닌 학자들의 에세이를 총 망라하여 모아 놓았다. 편집자들은 공간에 존재하는 경제지리학적 사건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경제지리학자들은 그들을 적절하게 기술하고 감각적인 해석하기 위하여 학문에 대한 열정과 함께, 헌신, 적당한 준비, 그리고 앞선 훈련이 요구된다고 보고 경제지리학을 연구하는 기술을 소개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이 책은 경제지리학이라는 하나의 학문 분야가 밝히고자 하는 본질적인 문제들에 대한 현존하는 아이디어들과, 개념들, 그리고 이론들에 특히 초점을 두고 있다.

경제지리학 연구에서는 경제지리학의 지속적으로 관심을 받고있는 다양한 의문들(각 물건들은 어디서 생산되는가?; 어떤 상황 하에서 생산되는가?; 어떤 장소에서 생산되었던 상품들이 어떻게 다른 장소에 이르게 되는가?; 어떤 수단에 의해서 이동하는가?; 그리고 누가 그것들을 구매하는

가? 등)과 이에 대한 답을 찾으려는 노력이 지속되어 왔다. 이 책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하여 특히 지난 20여 년 동안에도 경제지리학의 접근방법에 있어서 변화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유형의 질문들은 다른 학문 분야로부터 다양한 형태의 관심을 끌어들여오고 있다. 특히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경제지리학은 경제지리학내에서 뿐만 아니라 인접한 사회과학의 다른 분야로부터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경제지리학자들은 그들의 학문적 기술방법을 실습할 적절한 시기에 와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책의 출판은 매우 시의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크게 다섯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부분은 '경제지리학의 세계'(worlds of economic geography)로 경제지리학 연구에 적용되고 있는 다양한 철학적 논쟁과 접근방법에 대한 감각을 제공해 주고 있다. 즉, 19세기 말부터 하나의 학문분야로 자리잡아온 경제지리학 분야를 역사적 맥락에서 조명하고, 이어 수학적 모형화의 전통, 그리고 맑시즘적·여성주의적·제도주의적 접근방법과, 좀 더 최근의 후기 구조주의적 접근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특히 이 부분에 실린 논문들을 통하여 그 글을 쓴 저자들의 지적

* 성신여자대학교 지리학과 교수

(知的), 정치적, 그리고 사회적 입장에 따라 경제 지리학에서 묻고 있는 핵심적인 질문들에 대하여 그들이 취하고 있는 철학적이고 이론적 접근방법에 의해 그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통하여 경제지리학에서 묻고 있는 질문들에 대하여 이러한 철학적 입장이 영향을 주는가 하는 것과, 만일 다른 입장과 인식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 저작되었다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하는 점을 생각해 보도록 독려하고 있다.

이 책의 둘째 부분인 '생산의 환경'(realms of production)에서는 경제지리학에서 필연적으로 관심을 갖게되는 경제적인 현상들(생산, 작업, 집적, 경쟁과 시장, 경제적 성장, 그리고 기술적 변화)을 다루고 있다. 특히 경제지리학자들이 이러한 주제들에 어떻게 접근하고 있으며, 그 각각에 있어 지리적 접근법이 경제학에서 다루는 것과 어떻게 비교되고 구별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경제지리학을 지리학의 한 부분이 되게 하는 것은 인간과 환경, 자연과 사회 사이의 관계에 대한 관심으로, 이 책의 셋째 부분은 '자원 세계'(resources worlds)에 포함된 글들도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포함된 글들에서는 자연을 경제적 생산에 하나의 투입으로 보는 시각에서 어느 곳에서 그 관계가 가장 확고한가에 대한 논의와, 농업적 실행을 분석하는데 있어(특히 제3세계에서) 중심적인 이론적 접근법이 되는 정치적 생태에 대한 논의, 경제지리학적 과정에서 자연의 생산(the production of nature)에 대한 논의,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산이 자연에 가장 밀접하게 묶여져 있는 비농업적 장소인 자원 도시들에 대한 논의들을 제공하고 있다.

자연과 사회에 대하여 다른 분야에서는 분리시

켜서 연구하는 것들을 지리학에서는 그들 사이의 관계성에 관심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보려고 하는 분야이므로 이 책의 네 번째 부분인 '사회적 세계'(social worlds)에서는 경제적 과정을 사회의 나머지 부분들로부터 분리시키거나, 보다 우위에 놓거나 좀 더 본질적인 것으로 보기보다는 사회적 과정의 하나로 다루고 있다. 이 부분에서 소비와 가족, 사회적 계급, 노동조직(노동조합 등), 정치적 행정, 생산자(기업)의 조직, 그리고 사회적·인종적 네트워크 등의 주제를 다루고 있다. 각 장은 사회적인 것이 경제적인 것과 교차되는 부분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지리적 인식의 중요성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다.

지리학은 단지 장소에 대한 것이 아니라 공간에 대한 것으로 장소의 뚜렷한 경제적 특징들과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경제적 가능성의 조건들이 다른 장소들과 경제적으로, 그리고 지리적 상호 의존성이 있다. 따라서 이 책의 마지막 부분인 '유통의 공간'(spaces of circulation)에서는 상품, 화폐, 그리고 사람의 지역간의 흐름, 그리고 그들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형성된 교통체계와 통신체계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여기에 실린 논문들은 세계는 점점 더 작아지고 있지만, 세계화의 핵심적인 표현은 장소들 사이에 상호 의존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경제지리학에 있어서 지리학자들과 경제학자들 사이에 견해를 교환하는 것도 학문분야의 진보에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 책의 편집자들은 경제지리학은 지리적 경제학과는 상당히 다르다고 생각하여 지리학자들의 글만을 실고 있다. (2002년 12월 13일)